

# 2016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전망

성재민\*

2016년 노동시장은 경기둔화, 구조조정, 50대 취업자 증가폭 둔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16년 한국경제는 건설업만 호황을 누리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경기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총선 이후 조선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급기야 7월부터는 감소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전년동월비 339천 명 증가로 시작한 취업자 증가폭은 10월 278천 명 증가로 둔화된 상태이며, 2016년 1~10월 평균도 296천 명 증가에 불과한 모습이다.

인구변동도 중요하였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취업자수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베이비부머가 50대 중반~60대 초반으로 이동하여 은퇴연령대에 접어든 것도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청년층은 여전히 노동시장 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20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하였는데, 안 좋은 경제여건 때문에 취업자와 실업자(통계 정의상 구직활동을 활발히 할 경우에만 실업자로 분류된다)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수치로 보면, 20대 졸업생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016년 1~10월 전년동기간 대비 7.4%나 감소한 반면, 고용률은 0.5%p 증가한 71.6%, 실업률은 0.8%p 증가한 9.7%를 보였다. 구직활동은 활발하였지만 녹록지 않은 노동시장 상황으로 모두 취업할 수는 없었던 상황은 실업자 증가로 이어져 20대 실업률은 1~10월 평균 기준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10.1%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자영업 증가이다.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국제금융위기를 빠져나온 이후 최저수준인 2016년 10월 전년동월대비 158천 명까지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는 8월부터 증가로 전환되어 10월까지 3개월째 증가폭을 늘리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면 일자리가 부족해 창업으로 내몰리거나,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나타나는 자영업 증가는 가계부채 악화요인이자 일자리 질에 적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seongjm@kli.re.kr).

이번 호 『노동리뷰』는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2017년 전망을 담은 원고와 함께 청년, 여성, 고령층, 자영업자로 나누어 각 집단별 노동시장 상황을 담은 네 편의 원고로 구성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주요 집단의 노동시장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청년, 여성 원고는 2016년 노동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고령층 원고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고령층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자영업 원고는 왜 자영업이 어려운지를 매출 둔화, 임대료 문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경기둔화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대체로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에 회복흐름을 보이는 상저하고의 경제성장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내년 상반기는 올해와 유사하게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실업률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예상대로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흐름에 들어선다면 노동시장 상황도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나아진다는 경기전망이 세계경제가 좋은 경기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도 크다.

2017년 초에는 조선업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올해보다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청년층의 구직 어려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이 경제활동의 주축을 담당하는 15~64세 인구 증가의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의 활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큰 경제 상황을 볼 때 국회와 정부가 상반기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둔화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재정 대책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실업 및 일자리 대책도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각종 지표로 볼 때 양극화와 불평등이 다소 완화된 상황인데, 이는 이 기간 제조업 일자리 증가와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무상보육 실시 등 재정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로 전년도 보건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매우 작았던 영향으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이 예년의 증가폭을 이어간 것처럼 보일 뿐,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증가에서 큰 역할을 했던 어린이집 증가가 포화상태에 도달해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증가는 불가능할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지속된다면, 다시 각종 지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제는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들이다. 수출의 낙수효과는 약화된 지 오래이고, 내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지만 정책의 주안점이 이 방향으로 이동한 적은 없었다. 분배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 마련에 막혀 큰 진전은 없었다. 내년은 대선의 해다.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방향에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한 백가쟁명이 있을 것이다. 『노동리뷰』에서도 다양한 중장기 이슈를 가지고 독자 여러분을 찾아 뵈는 것을 약속드린다. **KLI**